

여성살인범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분노특성을 중심으로-

김 상 균*

◇ 목 차 ◇

-
- I. 서 론
 - II. 분노이론 및 선행연구의 결과
 - III. 연구방법
 - IV. 결과 및 논의
 - V.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ABSTRACT
-

I. 서 론

여성범죄에 관한 문제는 오늘날 범죄자와 피해자로서의 여성의 처우에 대한 법적 대응에 관한 관심과 더불어 활발한 논의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여성과 범죄에 대한 논의는 피해자로서의 여성에 치중되어 연구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현대사회에서 여성범죄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최근까지 범죄학에서 여성을 범죄의 주체로서 다루기보다는 피해자로서 다루어 왔으나, 1970년대 이후 페미니스트의 영향으로 범죄학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¹⁾ 특히 우리 나라의

* 육군3사관학교 심리학과 교수, 법학박사.

경우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여성범죄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공식적 통계자료를 이용한 실태연구와 여성수용자의 교정처우문제에 한정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²⁾ 우리 나라의 경우 외국과 비교하여 여성범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이유는 양적으로 여성범죄의 수가 많지 않으며, 질적으로도 범죄의 악질적인 면이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³⁾

하지만 살인은 실제로 사건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범죄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살인은 한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점에서 가장 두려운 범죄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살인범죄발생추세를 보면 매년 500~800여건 정도의 사건이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안정된 변화추세를 보이고 있다.⁴⁾

이중에서 여성에 의한 살인사건의 비율은 전체 살인사건 중 10~15%의 수준으로 비교적 그 비율이 낮다.⁵⁾ 여성에 의한 살인이 양적인 수치가 적고 하여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되며,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여성살인과 관련된 특성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형사사법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경우 여성범죄에 대한 실증적 연구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여성살인에 관한 심리학적 실증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⁶⁾

따라서 본 연구가 여성살인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살인과 관련된 주요 변인들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살인범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여성살인범과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심리학적 특성들을 파노라마적⁷⁾으로 분석하고, 여성살인에서 분노감정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 1) 프랜시스 하이텐슨, 여성과 범죄, 이영란 역 (서울 : 나남출판사, 1994), pp.211~222.
- 2) 여성범죄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전영실, 여성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1993 ; 정진연, 여성범죄에 대한연구 1996 ; 박광섭, 한국여성범죄의 실태와 연구동향, 1998 ; 최영신, 여성수용자의 처우실태와 개선방향연구, 1999 ; 심영희, 여성범죄의 추세, 1987 등이 있다.
- 3) 박미숙, "여성범죄문제에 대한 논의현황과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59호, 2000. 5, p.22.
- 4) 박순진, "살인사건의 발생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59호, 2000년 5/6월, p.11.
- 5) 1998년도 경찰청 범죄분석자료에 의하면 전체범죄 중 약 15.3%를 차지하였으며, 범죄원인은 이육이 20.3%, 부주의 16.2%, 우발적 11.6%이고, 연령별로는 40대가 27.9%, 30대가 35.6%, 20대가 20.3%였다.
- 6)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살인범죄연구는 1989년 신진규교수의 "우리 나라에 있어 각종 살인사건의 발생원인과 그 대책에 관한 일연구", 1992년 형사정책연구원의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이나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이용한 연구이다.
- 7) 파노라마적 사회심리학이란 한 사회속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을 거시적 시각에서 사회심리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심리학을 말한다(차재호, 파노라마적 사회심리학의

지 알아보고자 한다.

II. 분노이론 및 선행연구의 결과

1. 분노의 제이론

분노는 '강한 불쾌감으로 일어난 감정의 흥분', '두려움이나 불안감에서 비롯된 감정', '심리적 좌절감에서 생겨난 감정적인 반응', '외적 사건에 대한 개인이 명명하는 내적 반응', '인체 내 아드레날린 분비에 따른 생물학적 체내반응' 등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인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다.⁸⁾ 그래서 분노는 의지의 상실, 상황판단의 오류, 성급한 폭력의 유발 등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감정이다.⁹⁾ 특히 한국적 전통에서 여성은 억압적인 가부장적 사회에 길들여 참고 인내하는 것이 여성의 미덕이요 여성스러움으로 여겨져 왔다. 서양과 달리 한국은 집단성과 정(情)적 사회를 의미하는 '우리 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다.¹⁰⁾ 그래서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에 못 미치는 행동을 보일 때 한국인들은 '섭섭함'과 '야속함'과 같은 분노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그 이유는 상대가 자신을 남처럼 대했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처럼 한국인은 제3자보다는 자기와 잘 아는 사이일수록 감정의 표출은 객관성과 합리성보다는 주관성과 편향성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분노발생과정에 대한 주요이론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노의 순환모델이다. 이 모델은 분노는 일정한 순환과정을 거쳐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론이다. 분노의 표출정도나 방식에도 개인차가 있겠으나, Bilodeau(1992)는 분노의 발생 과정을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인간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사고의 결과와 종류에 따라 신체의 내분비물이 분비하게 된다. 그 화학반응은 생물학적인 과정을 거쳐 감정을 유발하게 하고, 그것은 특정의 행동을 일으키게 하여 그것이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순환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이론이다.

둘째, 사회적 구성 모델이다. 이 모델은 정서에 관한 사회적 구성주의자의 관점을 제

전개, 1991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pp.455~456 참조).

8) 김한식, 분노는 조절할 수 있다(대전 : 육군본부, 1998), p.32.

9) 차호원, 분노 (서울 : 두란노 도서출판, 1996), p.92.

10) 최상진, "당사자 심리학과 제3자 심리학 : 인간관계 조망의 두 가지 틀", 한국심리학회 추계 심포지움자료, 1997, 10월, pp.133~135.

시한 이론이다. Averill(1982)은 정서를 일시적인 사회적 역할 또는 일련의 행동으로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증후군으로 보았다.¹¹⁾ 그것은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규칙에 따라 의미가 변화하므로 정서의 기능과 의미는 사건의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른 정서와 마찬가지로 분노는 규칙의 내면화를 기초로 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한 형태로 개인의 인지적 구성에 달려 있다고 하는 정상적인 갈등정서로 보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관점이다.

셋째, 분노각성 모델이다. 이 모델은 분노를 정서적 각성을 담당하는 교감신경계의 각성작용에 의하여 폭력과 연합된다는 이론이다.¹²⁾ Rule과 Nesdale(1983)은 정서적 각성이 오직 폭력적인 단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폭력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¹³⁾ 즉, 각성의 근원적 특성들이 폭력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Weiner(1985)는 분노각성을 정서에 대한 귀인모형으로 설명하였는데¹⁴⁾ 분노감정은 외부사건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달려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Betancourt와 Blair(1992)도 분노가 공격적 행동의 결정에 매개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⁵⁾ 즉, 분노의 강도가 정서적 각성과 관련이 있으며 분노표출은 인지적 매개에 종속변수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인지적 구조 모델이다. 이 모델은 분노를 개인의 인지적 평가의 결과임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Novaco는 정서의 강도는 자극이나 화의 단서에 대한 인지적 평가, 개인의 성격특성, 상황적 결정요인들, 개인의 기대 등에 좌우된다고 보았다.¹⁶⁾ 그는 분노가 외형적인 공격행동으로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주장하고, 다른 스트레스 반응과 마찬가지로 분노는 내적 또는 외적 욕구나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 생성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인지적 신연합 모델이다. 이 모델은 분노나 좌절과 같은 혐오사건 외에도 슬픔, 우울, 비탄 등 나쁜 환경적 조건들이 분노에 의한 폭력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Berkowitz의 모델은 분노와 분노적 폭력을 설명하는데 인지적 개입을 필요로

11) J. R. Averill, *Anger and Aggression an Essay on Emotion* (New York : Springer-Verlag, 1982), p.141.
 12) 이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Ax(1953) ; Zillman(1983) 등이 있다.
 13) B. G. Rule과 A. R. Nesdale, "Emotional Arousal and Aggressive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83, 1983, pp.851~863.
 14) B. Weiner, "An Attributional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Emotion", *Psychological Review*, 92(2), 1985, pp.548~573.
 15) W. N. Welsh and A. Gorden, "Cognitive Mediators of Aggression"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8, 1991, p.139.
 16) Novaco, op. cit., p.1124.

하지 양음 강조하는 모델로서 최근에 공격의 성 차에 관한 분석의 결과가 일반적으로 이 모델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¹⁷⁾

2. 분노의 세유형

분노를 표출하는 유형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분노를 경험할 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개인차가 존재하는데, 이에는 분노표출, 분노억제, 그리고 분노조절로 그 특성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유발한 대상이나 외부의 환경에 분노를 표출시켜 행동을 나타내는 반면에, 화가 나도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만 삭이는 사람이 있다. 겉으로 화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은 분노감정을 더 약하게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으려고 억제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분노감정을 억지로 참는 사람에게 고혈압 등 심장질환이 더 많다는 것은 정서의 억압기제와 신체생리반응과의 관계를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에게 ‘화병’이라는 독특한 병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한국인이 분노감정의 처리양태를 설명하는 흥미로운 점이라고 할 것이다.

일련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분노억제(anger-in)와 잠재적인 적개심이 관상동맥경화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¹⁸⁾ 분노를 강하게 느끼면서도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적절한 상황적 요인에 의해 순간적으로 억압된 감정을 표출할 수가 있다. 이는 과잉통제형이 오히려 도발적인 상황에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Megargee의 주장과도 일치한다.¹⁹⁾ 한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표출하는 것은 범죄와 상관성이 대단히 높은데, 동생이 형에게 “형은 무절제하고 돈을 낭비하고 사생활이 문란하다”고 하는 편찬에 격분하여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옆구리를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의 예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살인이나 폭행사건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17) B. A. Bettencourt and N. Miller, “Gender Differences in Aggression as a Function of Provocation :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19, No. 3, 1996, pp.422~447.

18) J. M. MacDougall, T. M. Dembroski, “Components of the Type A Coronary-Prone Behavior Pattern and Cardiovascular Responses Psychomotor Performance Challenge”,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I, pp.159~176.

19) E. I. Megargee, “Undercontrolled and Overcontrolled Personality Types in Extreme Antisocial Aggression”, *Psychological Monographs*, 3(63), 1963, pp.102~104.

3. 선행연구의 결과

우리 속담에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분노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면 자칫 범죄와 직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적감정인 좌절, 불안, 갈등, 증오, 공포, 수치, 흥분, 분노는 비행 또는 범죄행동과 관련이 있다. 강지원(1994)은 ‘욱’하는 감정이 폭력비행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다.²⁰⁾ 그에 의하면 ‘욱’하는 감정은 순간적으로 공격을 받았을 때, 무시당하거나 모욕을 당했을 때, 자신의 일이 방해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약을 올릴 때나 신경질을 낼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욱’하는 감정이 ‘공격적인 독한 마음’과 연합되면 살인이나 흉기를 이용한 폭력행위가 야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한다.

한편 Agnew(1994)는 전통적 긴장이론에서 부적 감정을 청소년의 비행행동의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²¹⁾ 그에 의하면 여성범죄의 경우에 높은 긴장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드물다고 한다. 그 이유는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분노를 표현하도록 사회화되어 있지 않으며 분노를 경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자들은 부적감정을 내적 원인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Megargee의 주장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여성의 폭력범죄율은 낮으며, 역시 극단적 폭력은 드물고 거의 불규칙적인 분포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 그는 분노를 극단적으로 억제하는 과잉통제형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분노표현을 극도로 억제하며,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폭력을 적게 한다. 하지만 폭력적 행동표출이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자신의 분노억제가 어느 한도를 초과할 때 대단히 극단적인 폭력행동을 표출한다.²²⁾ 한편 Bernard(1993)는 생물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도 만성적인 분노를 경험하게 되면 나약한 대상을 향하여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대부분의 범죄학 문헌에서 살인범들은 공격성을 이미 가지고 있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낮은 통제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이런 살인자들은 가정이나 술집에서 가족과 평소에 안면이 있는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가 많다.

20) 강지원, “청소년 인성지도의 실천적 방향”, *청소년의 비행심리와 인성지도*, 1994, p.30.

21) R. Agnew, “Why do they do it? An Examination of the Intervening Mechanisms between Social Control Variables and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30, No. 3, 1994, pp.245~266.

22) Megargee의 이론을 검증한 대표적인 연구자들은 Blacburn, Holland and Holt, Lane and Kling, Lang et al., Walters et al. 등이 있다.

최근 연구에서 분노가 범죄행동에 가장 밀접한 단서임이 밝혀졌다.²³⁾ 연구자들은 분노를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아주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 폭력행동 중에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감정상태는 아주 부정적이고 극단적이며 통제가 잘 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감정상태는 개인에게 인지적 왜곡과 부정적인 행동을 초래케 한다.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극단적인 각성상태일 때 일반적으로 생각은 제한적, 개인적, 현실적이며, 모험추구적이고, 행동 지향적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조은경의 분노표현양식과 범죄유형별 차이에 관한 연구를 보면, 폭행범은 주로 화가 날 때 물리적 공격을 하거나 버럭 화를 낸다는 반응을 가장 많이 표출하였다.²⁴⁾

또 폭행범이 무계획적인 범행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범행은 '화가 나서'라는 동기가 살인범, 폭행범의 순으로 많았다. 이 연구결과는 살인, 폭행, 강간 등의 폭력성 대인범죄의 발생원인이 '화'에 범행을 많이 하는 감정적 폭력행동이 주원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 김준호에 의해 행해진 청소년들의 긴장대처방식에 관한 연구를 보면, "타인에게 분풀이를 하거나 짜증을 낸다", "그 상황에 대해 욕설을 하고 비난을 한다"라고 하는 정서지향적 대처방식을 하는 경우는 전체의 62.3%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²⁵⁾ Averill(1982)과 같은 분노의 사회 구성주의적인 관점을 강조하는 학자는 분노가 물리적 폭력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연구결과들은 분노가 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⁶⁾

지금까지의 선행연구결과에서 폭력범죄와 분노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의 분노가 살인과 같은 범죄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하다. 특히 여성에 의한 살인의 경우에 분노특성이 살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분노특성이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가해자인 여성과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심리학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수적인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3) E. Zamble and V. L. Quinsey, *The Criminal Recidivism Process* (Cambridge University, 1996), pp.225~227.

24) 조은경, "충동성과 공격성향이 강력범죄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제8권 제2호, 1997년 여름호, pp.151~154.

25) 김준호, "청소년의 긴장과 비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6, p.84.

26) 예를 들어, Geen and O'Neal(1971), Geen(1970), Zillman(1970) 등이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상과 같이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서 여성살인과 관련된 사회심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먼저 연구문제 1)은 “여성살인범의 일반적 특성은 어떠한가?”로 정하였는데, 이 연구문제를 통해서 여성살인범이 남성살인범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연구문제 2)는 “여성살인범과 피해자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로 설정하였는데,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여성살인범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잘 아는 사이의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하였던 바, 한국의 여성살인범도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연구문제 3)에서는 “여성살인범은 살인행위에 대한 죄책에 관한 인식은 어떠한가?”로서 자신의 행위결과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4)는 “여성살인범의 분노특성은 어떤 유형인가?”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살인범이 분노의 세 가지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여성범죄의 예방과 교정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살인범을 대상으로 실증적 조사방법을 선택하였다.

2. 연구방법

조사대상자는 살인죄로 현재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²⁷⁾ 조사는 연구자가 교정시설에 협조를 구하고 설문지를 발송하고 교정기관의 관계자가 설문내용과 응답방법을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다음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문에 응한 89명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9명을 제외한 80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조사도구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이미 검증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노를 비롯한 사회심리학 특성을 측정하는 30개 문항으로 구성되

27)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30대가 47.5%, 40대 35.5%, 20대가 12.5%, 50대 이상은 5%였고, 학력은 초등졸, 중졸, 고졸 이하가 각각 32.5%이고 대졸 이상은 2.5%에 불과하였다. 한편, 결혼과 직업을 보면 기혼이 5%, 이혼 또는 사별이 37.5%이며, 직업을 보면 주부가 52.5% 회사원이 27.5%, 자영업이 17.5%, 공무원이 2.5%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전업주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있다. 특히 분노특성척도는 Spielberg(1985), Averill(1982) 와 Siegel(1985) 등의 분노측정척도를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전경구의 분노특성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분노표출 10개 문항, 분노억제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리커트 5점 척도의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⁸⁾

본 설문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759$ 로 설문의 분석에 문제가 없다. 본 연구의 분석절차는 회수한 설문지를 오류검토작업, 편집, 부호화작업을 거쳐 SPSS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기초통계와 차이검증 등의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여성살인범과 피해자의 관계

아래에서 제시한 <표-1>은 여성살인범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한 표이다.

<표 1> 여성살인범과 피해자의 관계

N = 80

구 분	부모형제	남 편	애인/친구	직장동료	안면정도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
빈도(명)	6	36	8	8	14	8
비율(%)	7.5	45	10	10	17.5	10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편이 45%, 안면정도 있는 사람이 17.5%, 애인/친구, 직장동료가 각각 10%, 부모형제가 7.5%이며, 전혀 모르는 사람은 10%에 불과하였다. 즉, 여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살인은 남편이나 부모형제 등 가족간의 갈등이 발단이 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52.5%)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 피해자이라는 사실은 일반적인 살인사건의 특징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8) 전경구, “분노표현양식과 신체병리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991, pp.11~12.

2. 여성살인범의 전과와 공범관계

아래에서 제시한 <표-2>는 여성살인범의 범죄의 상습성과 범행시의 공범이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자료이다.

<표 2> 전과와 공범관계

N = 80

범 죄 경 력			공 범 관 계		
구 분	빈도(명)	비율(%)	구 분	빈도(명)	비율(%)
초 범	76	95.0	단 독	54	67.5
재범이상	4	5.0	2인이상	26	32.5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살인범 중 초범이 95%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재범이상인 상습범은 5.0%에 불과하였다. 한편 피해자를 살해할 때 단독으로 하였는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하였는지를 분석한 결과, 단독범이 67.5%이었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살해는 경우의 32.5%로 여성살인의 경우는 다른 재산범죄와 달리 범죄의 특성상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살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3. 여성살인범의 죄책에 대한 인식

<표-3>은 여성살인범이 살인의 결과에 대하여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얼마나 돌리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자료이다.

<표-3> 피해자의 죄책에 대한 인식

N = 80

구 분	전적으로 있다	많이 있다	반정도 있다	약간 있다	전혀 없다
빈도(명)	10	32	28	4	6
비율(%)	12.5	40	35	5	7.5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살인의 책임은 피해자에게도 '전적으로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12.5%,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가 40%, '반정도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5%로 전체 조사대상자중 피해자에게 절반 이상의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87.5%로 피해자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12.5%보다 훨씬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여성살인범의 분노특성

아래의 <표-4>는 여성살인범이 일반적으로 분노의 표출양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노표출 평균값과 분노억제평균값의 짝비교를 한 자료이다.

<표-4> 여성살인범의 분노유형차이검증

N = 80

평 균 값	평균값의 차이	표준편차	t값	sig
분노표출 : 2.26 분노억제 : 3.37	1.15	.713	9.87***	.000

*** = P<.001

두 가지 분노유형에 대한 비교는 리커트 5점 척도에서 각각의 평균값 비교한 결과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살인범은 분노유발상황이 있어도 외부로 표출하지 않고 참는 분노억제의 평균값이 3.37이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타내는 표출의 평균값은 2.26으로 평균값의 차이는 1.15이고 표준편차는 .713이었다. 두 차원의 평균값의 차이는 P<.001에서 t값이 9.87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여성살인범의 분노유형은 분노표출형보다 분노억제형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5. 살인과 분노특성의 관계

가. 여성살인범의 연령과 분노특성

<표-5>는 여성살인범의 연령에 따라서 분노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표-5> 연령과 분노특성의 교차분석결과

구 분		연 령 구 분				계
		20~30세	31~40세	41~50세	51세 이상	
분노 유형	분노 억제	2	26	14	2	44
	분노 표출	8	12	14	2	36
계		10	38	28	4	80

$$x^2 = 4.1, P < .05$$

위의 교차분석결과를 보는 바와 같이 가해자의 분노표출의 형태는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P < .05의 유의확률에서 유의미하였다. 즉, 여성살인범의 연령에 따라서 분노를 표출하는 양식에서 차이가 있는데, 특히 30대는 표출형보다 억제형이 유의미하게 많았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대에서 분노억제형이 분노표출형보다 많고, 20대는 분노표출형이 많았으며, 40, 50대는 분노표출형과 분노억제형이 비슷한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와의 관계와 분노특성

<표-6>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서 가해자의 분노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한 자료이다.

<표-6> 피해자와의 관계와 분노특성의 교차분석결과

구 분		피해자와의 관계						계
		부모/형제	남편	애인/친구	직장 동료	안면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	
분 노	분노억제	2	26	6	6	2	2	44
	분노표출	4	12	2	2	12	4	36
계		6	38	8	8	14	6	80

$$x^2 = 15.4, P < .05$$

위의 교차분석결과를 보는 바와 같이 가해자의 분노표출의 형태는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서 차이가 5%의 유의수준 내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편, 애인, 직장동료와의 관계에서는 분노억제형이 유의미하게 많았고, 약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이의 관계에서는 분노표출형이 많았다. 즉 여성살인범은 피해자가 자신과 가까운 사이일수록 분노를 억제하고 사이가 멀수록 분노를 표출하는 양식을 보이고 있다.

다. 여성살인범의 죄책과 분노특성의 관계

<표-7>은 가해자가 당해 살인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를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서 분노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표-7> 여성살인범의 죄책과 분노특성의 교차분석결과

구 분		죄책에 대한 인식					계
		전적으로 있다	많이 있다	절반정도 있다	약간 있다	전혀 없다	
분노 유형	분노 억제	6	18	16	2	2	44
	분노 표출	2	14	12	2	4	36
계		8	32	28	4	6	80

$$\chi^2 = .67, NS$$

위의 교차분석결과를 보는 바와 같이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유책정도에 따른 분노표출양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살인범의 피해자의 책임정도에 따라서 분노를 표출하는 양식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책임이 절반 이상 있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분노표출보다는 분노억제형이 오히려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성에 의한 살인은 분노의 표출에 의한 살인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참아왔던 억제된 분노의 결과가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V. 요약 및 결론

이상과 같이 여성에 의한 살인에 있어서 사회심리학적 특성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연구하여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살인범의 연령 및 학력을 분석한 결과, 30대(47.5%)가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학력은 중졸 이하(65%)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여성살인범의 결혼상태와 직업관계를 보면 기혼(92.5%)로 거의 대부분이 결혼을 한 경력이 있으며, 그들의 직업은 주부가(52.5%)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여성살인범과 피해자의 관계는 남편(45%)이 약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피해자의 대부분(90%)이 가해자와 평소에 아는 사이로 분석되었다.

넷째, 여성살인범의 범행당시의 정서상태는 화가 난 상태이거나 우울한 상태가 각각 40%로 높았고, 범행당시의 음주를 한 상태(40%)가 많았고, 약물복용상태는 2.5%로 낮은 편이었다.

다섯째, 살인을 한 여성의 범죄경력을 보면 거의 대부분(95%)이 초범이었고, 살인범행의 공범여부는 단독범행이 67.5%로 밝혀졌다.

여섯째, 가해자의 피해자의 책임정도에 대한 인식은 '절반이상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87.5%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일곱째, 여성살인범의 가해자의 일반적인 분노특성을 보면 분노를 직접표현하지 않는 분노억제형이 55%로 분노표출형보다 많았다.

여덟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른 분노특성의 교차분석결과는 유의수준 5%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 연령에 따른 분노특성과 피해자의 유책에 대한 인식과 분노특성의 교차분석결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결과를 파노라마적 사회심리학적 특성을 기술하여 보면, 여성살인범은 중등학교 학력을 가진 30대 이상의 주부가 남편 등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과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에서 모욕이나 폭행으로 심한 자존심의 손상경험을 참고 지내다 음주 등으로 화가 났거나 우울한 정서에서 살인을 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여성에 의한 살인에 있어서의 사회심리학적 특성을 밝히는 연구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통해서 여성살인의 원인을 이해하고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표집과정과 표본크기의 제한으로 연구결과의 대표성과 일반화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범죄의 연구, 특히 살인범죄의 연구는 사후검증을 통해서 양적 연구로 살인범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표집과정의 타당성과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를 통해서 연구결과의 일반화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살인의 연구는 양적 연구와 더불어 심층면접 등 질적인 연구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 국내문헌

- 강지원, “청소년 인성지도의 실천적 방향”, 청소년의 비행심리와 인성지도, 1994.
- 김상희외 1인,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 김준호, “청소년의 긴장과 비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6.
- 김한식, 분노는 조절할 수 있다, 대전 : 육군본부, 1998.
- 박미숙, “여성범죄문제에 대한 논의현황과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소식, 통권 제59호, 2000. 5.
- 박순진, “살인사건의 발생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59호,
2000. 5/6.
- 신진규, “우리나라에 있어 각종 살인사건의 발생원인과 그 대책에 관한 일연구”, 법학
논고 제5집, 경북대학교, 1989.
- 이재석, “살인범죄에 관한 실태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2.
- 전경구, “분노표현양식과 신체병리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
집, 1991.
- 조은경, “충동성과 공격성향이 강력범죄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제8권 제2호,
1997년 여름호.
- 차재호, “파노라마적 사회심리학의 전개”, 1991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1991.
- 차호원, 분노, 서울 : 두란노 도서출판, 1996.
- 최상진, “당사자 심리학과 제3자 심리학 : 인간관계 조망의 두 가지 틀”,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자료, 1997. 범죄분석, 경찰청, 1998.

■ 외국문헌

- B. A. Bettencourt and N. Miller, "Gender Differences in Aggression as a Function of Provocation :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19, No. 3, 1996.
- B. G. Rule and A. R. Nesdale, "Emotional Arousal and Aggressive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83, 1983.
- B. Weiner, "An Attributional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Emotion", *Psychological Review*, 92(2), 1985.
- E. I. Megargee, "Under-controlled and Over-controlled Personality Types in Extreme Antisocial Aggression", *Psychological Monographs*, 3(63), 1963.
- E. Zamble and V. L. Quinsey, *The Criminal Recidivism Process*, Cambridge University, 1996.
- J. R. Averill, *Anger and Aggression an Essay on Emotion*, New York : Springer-Verlag, 1982.
- R. Agnew, "Why do they do it? An Examination of the Intervening Mechanisms between Social Control Variables and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30, No. 3, 1994.
- W. N. Welsh and A. Gorden, "Cognitive Mediators of Aggression",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8, 1991.

ABSTRACT

A Study o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Female Murderers -FOCUS ON ANGER STYLE-

by Kim, Sang Kyu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nger characteristics and the soci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Homicide by Female. With SPSS win program I analyzed 80 female murderers caught in the correction facility.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

Firstly, the age bracket of the female murderers is very high in their thirties(47.5%), they didn't almost graduate from the middle-school(65%).

Secondly, they almost married(92.5%) and their job was the housekeeper(52.5%). Thirdly, the female murderers almost killed their husbands(45%) and other victims was people who was familiar with the female murderer. Fourth, the offenders were afraid that the victims had the responsibility for murder(87.5%). Fifthly, according to above analysis, the character type female murderers was almost anger-in type.

Finally, My analysis shows us that the anger characteristics between offenders and victims was very similar.

With the above research results, I can understand the socio-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female murderer. However, this paper has some problems which is the limit of the sampling range and the generalization of research results. In addition, we need to study the comparison with male murderers and female murderers.